

北신문 “美제재에 겁먹고 양보하면 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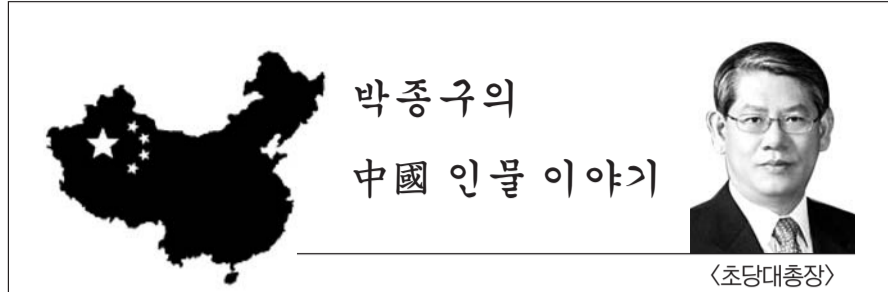
이라크·리비아 언급하며
“제재 목적은 정권교체
강한 투쟁으로 지켜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미국 등 서방이 말을 안 듣는 나라들을 제재로 굴복시키려고 한다며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는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에 겁을 먹고 양보하면 망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은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에 제재를 들이대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한걸음의 양

보는 열걸음, 백걸음의 양보를 가져오고 중당에는 망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이라크와 리비아를 언급,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공갈, 제재압박이 두려워 동요하면서 물러서다가는 국권을 유린당하게 되며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유엔의 무기 사찰을 수용했음에도 미국의 침공 이후 권력을 뺏기고 사형됐으며,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몇 년 되지 않아 반정부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은신 도중 사살됐다.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경제를 혼란시키고 민심을 불안케 하여 정권

교체를 실현하고 저들에게 예측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은 그 누가 가져다주거나 지켜주지 않는다. 오직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라크와 러시아 등 미국의 제재에도 자국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들을 거론하면서 “현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는 만능의 무기가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제재 문제를 다룬 노동신문 기사는 북한 입장보다는 외국 동향 보도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날 기사는 제목부터 제재를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관계발전에 엄청난 해를 주는 행위’ 제목의 기사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의 제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나라들에 대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들이 취한 제재는 그 지속성, 악랄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제재는 해당 나라들의 반발과 대응만을 불러일으킬 뿐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제재와 이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6일(보도일 기준) 삼지연 건설 현장에서 미국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에 대한 “인민의 분노”를 언급했으며, 노동신문도 지난 19일 사설에서 “믿을 것은 오직 자체의 힘과 인민의 드높은 정신력”이라며 자력갱생으로 제재 문제를 돌파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03〉 왕단
왕단(王旦, 957-1017)의 자는 자명(子明)이며 현재 산둥성 라오칭시에 해당하는 대명 신현 출신이다. 북송 진종 때 상을 지낸 청렴한 명신이었다. 대신 왕호의 아들로 새벽에 출생한 까닭에 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얼굴과 키가 비뚤어지고 목줄기가 튀어나와 외모가 변변치 않았다. 어린 시절 화산에 사는 도사가 그의 관상을 보고 “후일 크게 귀해질 상”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태평흥국 5년(980년) 진사에 급제해 관직에 나아갔다. 대리사평사를 거쳐 호남성 평강 현령이 되었다. 4년간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선정을 베풀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정세를 담당하는 전문사 조창언이 그의 행적을 높이 사 사위로 삼았다. 984년 후난성당

호주 신문들 1면 ‘먹칠’ 발령 언론사·기자 집 압수수색 항의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취재 보도한 방송사와 기자의 집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조치에 반발해 호주 주요 신문들이 21일(현지시간) 1면 기사를 검은 줄로 내용을 감춘 채 발행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사진> 더 오스트레일리안, 시드니 모닝 헤럴드,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등 호주의 주요 일간지들은 이날 1면의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검은 선으로 지운 신문들을 펴냈다. ‘정부가 진실을 감출 때, 그들은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라는 시점자에게 던지는 질문을 담은 광고도 방송 전파를 탔다.



불타는 사오미 매장 홍콩 시민 수만 명이 20일 경찰이 불허한 집회와 행진을 강행하면서 복면금지법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날 시위대는 시내 곳곳의 중국계 은행과 점포 등의 기물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극심한 반중 정서를 표출했다. 이날 홍콩 몽콕 네이선로드에 있는 중국 휴대전화 브랜드 사오미 매장이 시위대의 방화로 불타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알 권리’ (Right to Know)라는 단체가 조직한 이 캠페인은 연방 경찰이 올해 초 공영방송 ABC와 뉴스코프 에나카 스메서스트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스메서스트 기자는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를 썼고 두 명의 ABC 방송 기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호주 특수 부대가 저지른 전쟁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알 권리’ 측은 언론에 쉽게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 있는 국가안보법의 면책 적용을 끝자로 하는 6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4중 전회 앞두고 홍콩사태 등 난제 처리 고심

이르면 이번주 열릴 듯
무역 갈등 등 책임론 진화 주목
중국 공산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 전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홍콩 사태 등 난제로 고심하고 있다. 올해 4중 전회에서는 마·중 무역 갈등과 홍콩 사태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

식한 듯 시진핑 주석은 최근 들어 군부대 사찰과 해외 순방을 통해 군부와 민심을 다독이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21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 베이징(北京)에서 4중 전회를 열고 시진핑 집권 2기의 정책 방향을 결정함과 동시에 마·중 갈등에 따른 중국 경기 침체와 홍콩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4중 전회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마·중 무역 전쟁과 홍콩 사태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를 발목 잡던 마·중 무역 전쟁은 이날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통한 1단계 합의가 성사되면서 한 고비를 넘긴 듯 보이지만 아직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날 16-17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때까지는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송 과거제도 개혁한 명재상

주에서 일했는데 자사 하승구의 추천으로 저작좌랑으로 중앙에 복귀했다. 문원영화, 시류 등 문학 저작 편찬에 참여했다. 985년 통판을 거쳐 991년 지제고에 기용되었다. 이항은 그의 재능과 경륜을 높이 샀으며 전약수는 그를 재상감으로 주목했다. 997년 태종이 죽고 진종이 즉위하자 한림학사로 발탁되었고 인사와 문서를 관장하는 심관원과 통진은대부박사 업무를 담당했다. 퇴직하는 전약수에게 진종이 좋은 관리를 추천해달라고 청했다. 전약수가 왕단이 덕과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니 황제는 그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1000년 급사중과 공부상서에 올랐으며 1001년 공부시랑과 부제상인 참지정사에 기용되었다. 이후 재상에 올랐다. 1004년 진종이 요나라 성종의 침략에 맞서 친정하자 황제를 수행했다. 재상으로서 과거제도를 개혁하였다. 1007년 과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응시자 익명제를 지방 시험으로 확대했다. 1015년 등록원을 설립해 과거 관련 업무를 개선했다. 또한 관리 승진 제도를 손질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그는 사람보는 안목이 뛰어나 유능한 관리를 많이 추천했는데 이적, 왕종, 장사손, 여이간 등은 후일 재상의 지위에 올랐다. 1008년 진종이 태산에서 하늘에 제

환관 유승규가 근심하고 증직해 진종의 신임을 받았다. 말년에 증병이 들어 죽음이 임박하자 절도사 자리를 청원하였다. 황제가 왕단에 상의하니 답하기를 “차후에 누군가 요직인 추밀사 자리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계기로 이후 환관의 품계가 정4품을 넘지 않았다. 구준은 왕단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중서성이 안건을 추밀원에 이첩했는데 과거의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발견되자 추밀사 구준이 이를 문제 삼아 재상 왕단이 책망을 받았다. 얼마 후 추밀원에서 중서성으로 보내온 문건에도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왕단은 이 일을 불문에 부쳤다. 이 사실을 들은 구준이 심히 부끄러워 하였고 다음날 왕단을 만나 말하기를 “그처럼 큰 도량을 베풀어 주시니 참 고맙소이다.” 왕단은 대답하지 않았다. 1017년 가을 병이 위중해져 여러 차례 사직을 청하니 진종이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대신 재상의 녹봉을 주도했다. 환관을 보내 병세를 확인하고 약을 보내주었으나 61세로 죽었다. 진종은 3일간 조회를 파하고 직접 조문했다. 사후 태사, 위공공에 추증되고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남송 이종 2년 소혼각 24 공신의 일원으로 선정되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